

인종주의 타파를 위한 새로운 로드맵

2022년 7월 18일

인종주의에 대처하는 유의미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새로운 계획은 모든 주민에게 더 포용적이고 수용적인 앨버타주를 만들어줄 것이다.

앨버타주의 반인종주의 행동 계획(Anti-Racism Action Plan)에는 인종주의에 대한 대처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기 위한 앨버타주 정부의 노력이 기술되어 있다. 동 계획에는 다양성의 가치에 관해 앨버타주 주민을 교육하고, 각종 정부 제도 및 서비스 이용에 대한 체제적 장벽을 없애고, 모든 앨버타주 주민이 정보, 자원, 각종 서비스 및 기회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명시되어 있다.

“지난 3년간 앨버타주 정부는 인종주의에 대한 대처에 있어서 입증된 기록적 성과를 거두었으나, 모든 형태의 인종주의, 차별 및 체제적 인종주의를 영원히 종식시키기 위해 해야 할 일이 아직 많다. 이 행동 계획은 우리 앨버타주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롭고 공정하며 번영하는 곳이 되도록 인종주의를 타파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데 로드맵이 된다.”

케이시 마두, 노동이민부 장관(Minister of Labour and Immigration)

이 계획의 일환으로 앨버타주 정부는 증오와 차별로부터 취약 집단을 보호하고, 각 지역사회에 역량을 부여하여 사회적 수용, 다양성 및 다문화주의를 촉진하고 사회적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.

이러한 조치는 앨버타주 반인종주의자문위원회(Alberta Anti-Racism Advisory Council)의 권고와 인종주의에 맞서 싸우는 앨버타주 전역의 지역사회 집단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.

“조언을 준 앨버타주 반인종주의자문위원회와 지역사회 집단들의 지속적인 인종주의 타파 노력에 감사를 표한다. 인종화 집단 및 원주민은 모든 앨버타주 주민과 마찬가지로 우리 앨버타주의 번영에 중요한 존재이며, 우리는 이러한 행동을 통해 다 함께 협동하여 이들에게 힘을 주고 이들의 업적을 기릴 수 있다.”

무하마드 야신, 이민다문화주의부 부장관(Associate Minister of Immigration and Multiculturalism)

동 계획에 기술된 조치는 다섯 가지 주제로 나뉘어 있으며, 더 공평하고 수용적인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앨버타주 정부가 진전을 이루고자 하는 광범위한 영역들이 명시되어 있다. 이 5대 주제는 공공 교육 및 문화적 인식, 체제 개선의 촉매로서의 정부, 지역사회 역량 강화, 증오 사건 및 범죄에 대한 대응, 데이터 및 측정 등이다.

정부의 조치가 효과적이도록 하기 위해 동 계획에는 진전을 측정하는 조치가 포함되어 있다. 앨버타주 정부는 체제적 문제와 그 해결 방법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반인종주의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인종화 및 원주민 공동체와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다.

간추린 사실

- 앨버타주 반인종주의자문위원회는 인종주의에 맞서 싸우고 앨버타주 전역에 더 수용적이고 포용적인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에 관해 앨버타주 정부에 조언을 제공하는 기구로 설립되었다.
- 앨버타주 정부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했다:
 - 증오 범죄 연락 기구 및 증오범죄종합관리국(Hate Crimes Coordination Unit) 설립
 - *경찰법(Police Act)*에 따른 퍼스트네이션스 경찰 활동의 공식적 인정
 - 불심검문 금지
 - 앨버타주 보안인프라프로그램(Alberta Security Infrastructure Program) 도입
 - *공정등록절차법(Fair Registrations Practices Act)* 제정 및 앨버타주 신규 이민자의 자격 인정을 돕는 신규이민자공정대우국(Fairness for Newcomers Office) 설립
 - 정부의 수용적 소통 정책 개발

관련 정보

- [앨버타주 반인종주의 행동 계획\(Anti-Racism Action Plan\)](#)
- [앨버타주 반인종주의자문위원회\(Alberta Anti-Racism Advisory Council\)](#)